고용보험통계로 본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노동동향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Ⅰ. 서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고용시장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 노동자 등은 코로나19로 더욱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노동자에게 코로나19는 더욱 가혹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충격 상황은 매월 발표되는 고용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율과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모두 생산가능인구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감소하면서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고용률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여, 노동시장이 전년동기에 비해 활력을 잃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20). 구체적으로 11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상승세를 지속했던 서울지역 고용률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2020년 4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20). 2020년 8월 기준, 서울지역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명(-1.0%) 감소하였으며, 고용률은 59.6%로 1.0%p 하락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도 13만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감 변화로 코로나19로 시작된 고용충격의 변화 양상을 분

석한 연구에서도 서울지역은 고용회복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상훈, 2020). 이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실업자는 정점 대비 감소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생긴 결과이다. 또한 서울지역의 고용회복은 단기 일자리 위주여서 고용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지역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이 노동시장에 반영되어 고용충격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용보험통계를 활용하여 서울지역 노동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직예방과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위기상황의 노동시장 변화를 확인할 자료이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구직급여 수급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현황을 확인하고, 인적속성별, 산업별, 규모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서울지역 구직급여

1.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2020년 2월 이후, 서울지역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적게는 3천명에서 많게는 7천명 이상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1] 통상 구직급여 신청자는 고용보험 상실자가 급증하는 1월에 신청자 규모가 가장 크고 3월과 7월에 반등하는 형태[2]인데, 이전과 형태는 유

1) 2019년 10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요건, 수급기간, 지급액 등의 제도변경으로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여 전년동월과의 비교에 유의해야 한다.
2) 구직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비자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가능하고, 보통 고

사하나, 규모는 훨씬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수급자격 총 신청자 수는 14만 7,625명이었으며, 2019년 같은 기간에는 15만 5,563명, 그리고 2020년 동일 기간에는 19만 3,331명으로 2020년에 큰 폭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표-1> 서울지역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수급자격 신청자			실업급여 지급자		
	신청자수	증감	증감율	지급자수	증감	증감율
2019년 1월	32,447	2,214	7.3	88,407	6,818	8.4
2019년 2월	16,010	243	1.5	88,365	4,437	5.3
2019년 3월	23,276	967	4.3	95,531	4,988	5.5
2019년 4월	18,868	945	5.3	99,622	8,973	9.9
2019년 5월	15,896	978	6.6	95,823	7,845	8.9
2019년 6월	14,271	710	5.2	91,839	8,380	10.0
2019년 7월	19,639	1,406	7.7	94,807	9,733	11.4
2019년 8월	15,156	475	3.2	90,102	7,350	8.9
2019년 9월	13,763	1,155	9.2	84,723	10,580	14.3
2019년 10월	16,174	1,188	7.9	83,320	5,990	7.7
2019년 11월	16,496	1,117	7.3	79,371	5,485	7.4
2019년 12월	17,655	2,117	13.6	80,409	7,861	10.8
2020년 1월	33,444	997	3.1	94,118	5,711	6.5
2020년 2월	20,690	4,680	29.2	102,150	13,785	15.6
2020년 3월	29,481	6,205	26.7	116,578	21,047	22.0
2020년 4월	26,174	7,306	38.7	126,189	26,567	26.7
2020년 5월	22,116	6,220	39.1	131,243	35,420	37.0
2020년 6월	20,616	6,345	44.5	138,899	47,060	51.2
2020년 7월	22,655	3,016	15.4	142,869	48,062	50.7
2020년 8월	18,155	2,999	19.8	138,013	47,911	53.2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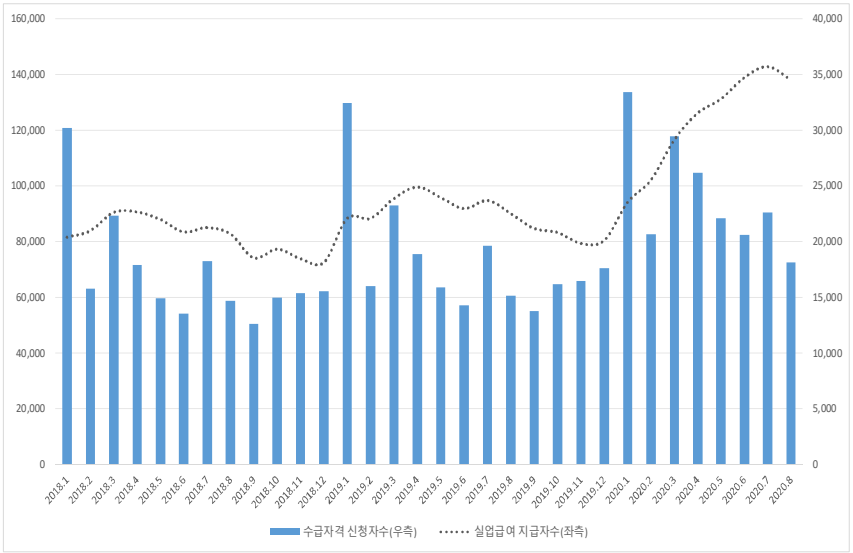
용계약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경향을 보여 1월, 3월, 7월에 상실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윤정혜, 2020).

4 고용보험통계로 본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노동동향

구직급여 신청자 규모의 증가와 함께,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역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는 2020년 2월 10만명을 넘어서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7월에는 14만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 3월의 신청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3, 4월의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도 증가하지만, 이전 연도가 3, 4월 이후에 감소하는 형태였던데 비해, 2020년에는 매월 지속적으로 수급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8월 1월부터 8월까지의 구직급여 총 수급자는 68만 5,972명이었으며, 2019년 같은 기간에는 74만 4,496명, 그리고 2020년 동일 기간에는 거의 백만명에 육박하는 99만 5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8개월간의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는 이미 2018년 연간 수급자 총 규모인 98만 3,879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그림-1] 서울지역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추이

단위 : 명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2020년의 구직급여 수급자와 구직급여 신청자 규모의 증가는 2019년 10월의 제도변경[3] 영향도 일부 있겠으나,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증가는 비자발적 상실자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최근 구직급여 신청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윤정혜, 2020).

2. 인적 속성별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1) 성별

성별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자를 보면, 2020년 1월 상실자가 급증함에 따라 남녀 모두 신청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전 년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2월 이후 신청자 규모는 2019년에는 크게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폭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년동월대비 1월 증가 규모는 남녀 각각 618명, 379명이었지만, 2월부터는 2천명 이상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를 신청한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남녀별 2019년과 2020년 구직급여 신청자를 살펴보면, 남성은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신청자 수는 5만 8,025명이었으며, 2020년 같은 기간 총 신청자는 7만 4,245명으로 1만 6,220명이 증가하였다. 여성은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6만 5,091명 신청했으며, 2020년 동일기간 신청자 수는 8만 5,642명으로 2만 551명이 증가하였다. 남녀별 증가율을 보면 남성은 28.0%였으며, 여성은 31.6%로 증가폭에 차이가 있었다.

---

3) 주요 변경사항은 (1) 구직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2)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 (3)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급요건이 기존 18개월 중 180일 이상 유급노동에서 '24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유급노동'으로 변경 등이다(김준영, 2020).

남녀별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도 유사하다.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구직급여 수급자수는 남성은 31만 1,157명에서 2020년 같은 기간 41만 9,108명으로 10만 7,951명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2019년 34만 4,932명에서 2020년 47만 6,833명으로 13만 1,901명 증가하였다. 수급자 규모 증가율은 남녀 각각 34.7%와 38.3%로 여성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남녀 모두 실직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과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집중되고 있다고 하겠다.

<표-2> 서울지역 성별 구직급여 신청자

단위 : 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남성			여성		
	신청자수	증감	증감율	신청자수	증감	증감율
2019년 1월	16,414	1,329	8.8	16,033	885	5.8
2019년 2월	8,187	303	3.8	7,823	-60	-0.8
2019년 3월	9,307	552	6.3	13,969	415	3.1
2019년 4월	8,827	460	5.5	10,041	485	5.1
2019년 5월	7,612	490	6.9	8,284	488	6.3
2019년 6월	6,768	258	4.0	7,503	452	6.4
2019년 7월	9,705	883	10.0	9,934	523	5.6
2019년 8월	7,619	564	8.0	7,537	-89	-1.2
2019년 9월	6,498	613	10.4	7,265	542	8.1
2019년 10월	8,037	808	11.2	8,137	380	4.9
2019년 11월	8,157	739	10.0	8,339	378	4.7
2019년 12월	8,899	1,202	15.6	8,756	915	11.7
2020년 1월	17,032	618	3.8	16,412	379	2.4
2020년 2월	10,329	2,142	26.2	10,361	2,538	32.4
2020년 3월	11,849	2,542	27.3	17,632	3,663	26.2
2020년 4월	12,154	3,327	37.7	14,020	3,979	39.6
2020년 5월	10,158	2,546	33.4	11,958	3,674	44.4
2020년 6월	9,871	3,103	45.8	10,745	3,242	43.2
2020년 7월	11,221	1,516	15.6	11,434	1,500	15.1
2020년 8월	8,663	1,044	13.7	9,492	1,955	25.9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표-3> 서울지역 성별 구직급여 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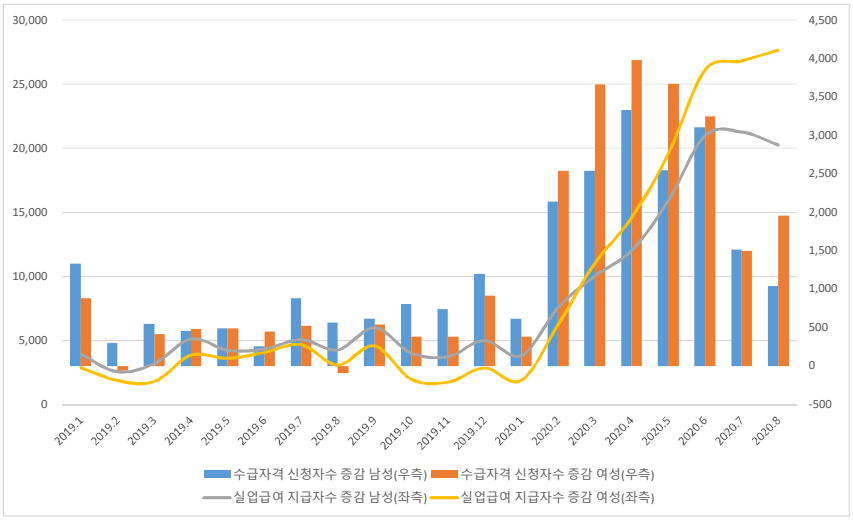
단위 : 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남성			여성		
	수급자수	증감	증감율	수급자수	증감	증감율
2019년 1월	43,143	3,934	5.8	45,264	2,884	6.8
2019년 2월	43,371	2,562	-0.8	44,994	1,875	4.3
2019년 3월	45,881	3,191	3.1	49,650	1,797	3.8
2019년 4월	46,813	5,115	5.1	52,809	3,858	7.9
2019년 5월	44,665	4,239	6.3	51,158	3,606	7.6
2019년 6월	42,745	4,323	6.4	49,094	4,057	9.0
2019년 7월	44,532	5,068	5.6	50,275	4,665	10.2
2019년 8월	43,150	4,256	-1.2	46,952	3,094	7.1
2019년 9월	41,193	5,998	8.1	43,530	4,582	11.8
2019년 10월	40,684	4,016	4.9	42,636	1,974	4.9
2019년 11월	38,852	3,738	4.7	40,519	1,747	4.5
2019년 12월	39,599	5,004	11.7	40,810	2,857	7.5
2020년 1월	46,960	3,817	2.4	47,158	1,894	4.2
2020년 2월	50,932	7,561	32.4	51,218	6,224	13.8
2020년 3월	55,905	10,024	26.2	60,673	11,023	22.2
2020년 4월	58,815	12,002	39.6	67,374	14,565	27.6
2020년 5월	60,551	15,886	44.4	70,692	19,534	38.2
2020년 6월	63,715	20,970	43.2	75,184	26,090	53.1
2020년 7월	65,791	21,259	15.1	77,078	26,803	53.3
2020년 8월	63,399	20,249	25.9	74,614	27,662	58.9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그림-2] 서울지역 성별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증감

단위 : 명,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2) 연령별

구직급여 신청자와 수급자를 통해 코로나19의 연령별 영향을 분석하면 다른 연령보다 20대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동월대비 구직급여 신청자와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20대는 2020년 2월 이후,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대의 전년동월대비 구직급여 신청자 증감률은 2020년 2월 41.0%에서 4월에는 50.7%, 6월 50.1% 등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구직급여 신청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대의 구직급여 수급자 증감율은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2020년 6월, 7월은 전년동월대비 거의 두배로 증가한 상황이다. 각각 99.1%, 97.7% 증가하여, 2019년 6, 7월보다 거의 두배 규모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에 의한 실직이 다른 연령대에서도 크게 나타나지만, 20대에게는 훨씬 가혹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4> 서울지역 연령별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증감률

단위 : %, 전년동월대비

	구직급여 신청자					구직급여 수급자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9년 1월	5.8	2.1	4.4	4.2	17.5	5.4	-0.3	7.8	10.5	18.8
2019년 2월	1.1	-1.9	-5.6	3.2	13.8	3.0	-1.7	3.5	4.2	17.4
2019년 3월	0.7	-0.5	7.2	7.1	10.3	0.9	-1.2	3.8	6.4	17.5
2019년 4월	4.2	3.4	4.9	8.4	6.3	7.4	3.4	8.5	10.2	20.9
2019년 5월	11.6	0.6	3.8	6.0	14.4	6.4	3.3	6.6	9.1	20.4
2019년 6월	9.4	0.8	2.7	5.2	10.3	9.1	4.7	7.4	9.2	21.0
2019년 7월	10.7	2.4	1.7	6.2	18.7	12.3	5.6	8.2	11.0	21.5
2019년 8월	6.9	1.4	5.3	-0.8	3.9	10.0	3.2	5.8	8.3	18.3
2019년 9월	18.6	1.1	4.8	8.5	15.6	19.0	9.5	10.8	12.2	22.2
2019년 10월	4.8	9.7	5.0	11.4	8.8	9.6	2.9	3.8	7.9	16.0
2019년 11월	9.2	3.6	3.4	10.3	10.6	8.1	4.1	3.6	7.8	14.2
2019년 12월	20.1	8.4	7.7	14.9	17.8	12.8	6.7	7.4	11.0	17.3
2020년 1월	4.6	-7.6	0.9	3.0	10.7	9.7	1.6	2.7	6.9	11.6
2020년 2월	41.0	22.3	18.9	28.6	35.6	22.4	9.3	10.9	16.0	20.1
2020년 3월	39.6	16.9	20.4	32.3	25.4	42.2	14.7	15.7	20.0	22.6
2020년 4월	50.7	23.6	29.0	48.2	44.2	52.8	17.6	19.6	24.9	24.3
2020년 5월	45.8	28.4	34.4	44.3	42.3	74.9	24.9	28.9	34.3	31.0
2020년 6월	50.1	40.6	39.1	43.0	45.9	99.1	40.6	43.8	45.3	40.1
2020년 7월	24.9	9.6	14.4	11.1	14.0	97.7	38.6	42.1	46.1	42.6
2020년 8월	30.0	12.7	7.9	23.6	23.7	105.2	43.0	45.6	45.2	43.4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3.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

〈표-5〉는 2020년 1월 이후 서울지역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 현황이다. 2020년 1월 이후 8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 규모는 도소매업 2만 8,645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2만 8,193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만 8,911명, 숙박 및 음식점업 1만 8,319명, 제조업 1만 6,891명 등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신청자 증가가 큰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

업으로 58.4% 증가하였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신청자는 1만 1,566명이었지만, 2020년 같은 기간에는 1만 8,319명이 신청하여 증가폭이 다른 업종보다 컸다.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29.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27.2%, 정보통신업 22.0% 순이었다.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여행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등의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5> 서울지역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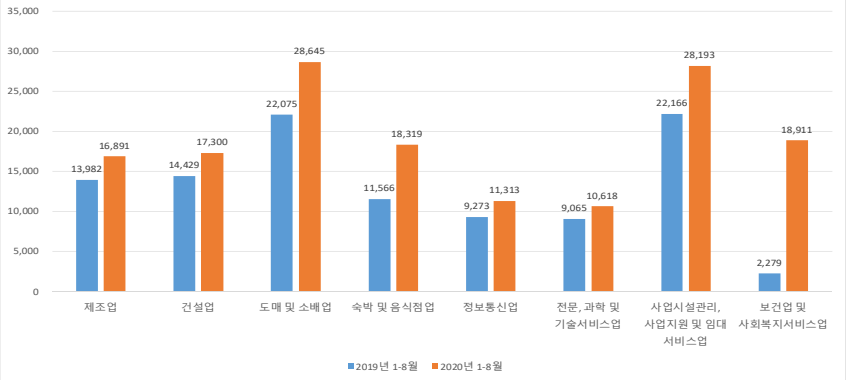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20.1	2020.2	2020.3	2020.4	2020.5	2020.6	2020.7	2020.8	전체
제조업	2,310	1,902	2,106	2,400	2,404	2,100	1,974	1,695	16,891
건설업	2,952	2,190	2,225	1,992	1,964	1,983	2,126	1,868	17,300
도매 및 소매업	3,382	3,100	3,691	4,210	3,948	3,441	3,636	3,237	28,645
운수 및 창고업	1,292	656	951	1,105	884	781	859	717	7,245
숙박 및 음식점업	1,871	1,771	2,902	3,193	2,230	2,220	2,173	1,959	18,319
정보통신업	1,642	1,327	1,388	1,674	1,492	1,371	1,408	1,011	11,313
금융 및 보험업	1,052	968	534	524	452	485	691	435	5,141
부동산업	1,328	705	764	828	616	744	814	600	6,39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8	1,169	1,323	1,466	1,263	1,253	1,335	1,171	10,61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5,916	3,102	3,765	4,120	3,202	2,699	3,020	2,369	28,19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894	670	496	265	277	587	1,119	316	7,624
교육서비스업	1,256	550	2,829	1,106	726	573	579	596	8,21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17	1,661	5,401	2,159	1,731	1,607	1,878	1,457	18,911
기타	1,894	919	1,106	1,132	927	772	1,043	724	8,514
전체	33,444	20,690	29,481	26,174	22,116	20,616	22,655	18,155	193,331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그림-3] 서울지역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 변화

단위 : 명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표-6> 서울지역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

단위 : 명, %, 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9년 1-8월	13,982	14,429	22,075	11,566	9,273	9,065	22,166	16,420
2020년 1-8월	16,891	17,300	28,645	18,319	11,313	10,618	28,193	18,911
증가율	20.8	19.9	29.8	58.4	22.0	17.1	27.2	15.2
증감	2,909	2,871	6,570	6,753	2,040	1,553	6,027	2,491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4. 사업체 규모별 구직급여 신청자

사업체 규모별로 구직급여 신청자를 살펴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는 10인 미만 사업장 6만 6,533명, 10인~29인 사업장 3만 2,621명, 1,000인 이상 사업장 2만 8,58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2019년보다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신청자가 33.6%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30인~49인 사업장 28.7%, 50인~69인 사업장 20.9%였다.

<표-7> 서울지역 사업체 규모별 구직급여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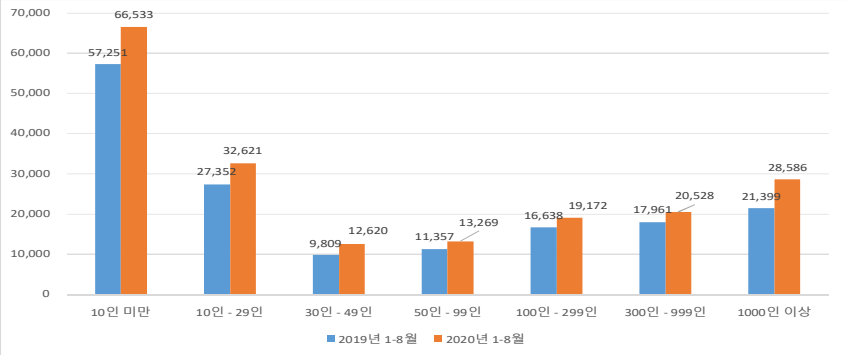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20.1.	2020.2.	2020.3.	2020.4.	2020.5.	2020.6.	2020.7.	2020.8.	전체
10인 미만	8,222	7,464	11,332	9,352	8,051	7,689	7,717	6,706	66,533
10인 ~ 29인	4,841	3,395	5,844	4,514	3,836	3,463	3,580	3,148	32,621
30인 ~ 49인	2,148	1,159	2,040	1,680	1,411	1,388	1,544	1,250	12,620
50인 ~ 99인	2,460	1,320	1,918	1,855	1,463	1,398	1,575	1,280	13,269
100인 ~ 299인	3,650	1,931	2,553	2,595	2,427	1,973	2,270	1,773	19,172
300인 ~ 999인	5,688	2,026	2,418	2,362	2,032	1,843	2,588	1,571	20,528
1000인 이상	6,435	3,395	3,375	3,815	2,896	2,862	3,381	2,427	28,586
전체	33,444	20,690	29,480	26,173	22,116	20,616	22,655	18,155	193329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분류불능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그림-4] 서울지역 사업체 규모별 구직급여 신청자 변화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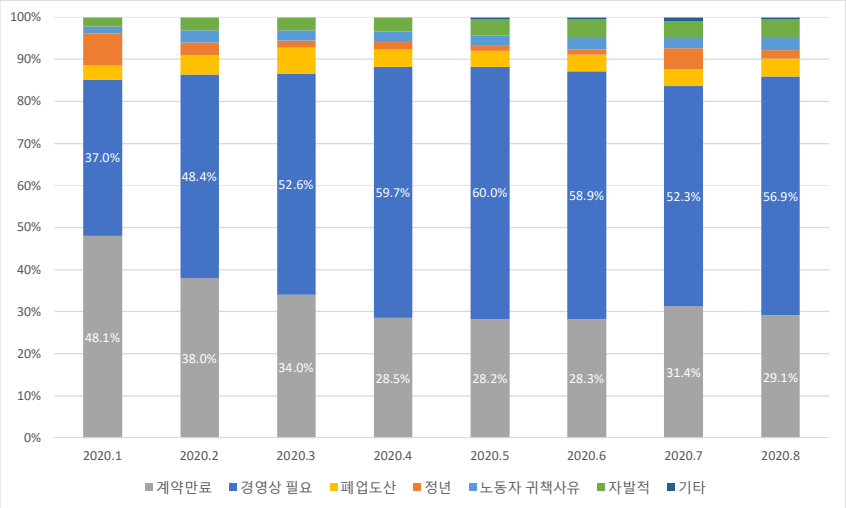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분류불능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5. 이직사유별 구직급여 신청자

[그림-5]는 2020년 월별 이직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자 비율이다. 1~2월은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자가 많은 달로, 2020년 1월과 2월은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가 각각 48.1%, 38.0%로 다른 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1, 2월에 계약만료에 의한 실직과 코로나19에 의한 재취업 어려움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많은 것이라면, 3월부터는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구직급여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윤정혜, 2020). 이직사유 중 경영상 필요와 폐업·도산 비율이 1, 2월은 40.4%, 52.8%에서 3월부터는 58.9%, 5월에는 63.9%까지 증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5] 서울지역 이직사유별 구직급여 신청자 비율

단위 : %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표-8> 서울지역 이직사유별 구직급여 신청자 수

단위 : 명

구분	2020.1	2020.2	2020.3	2020.4	2020.5	2020.6	2020.7	2020.8	전체
노동자 귀책사유	563	564	693	635	530	544	564	512	4,605
정년	2,534	586	493	504	276	258	1,111	345	6,107
계약만료	16,090	7,237	10,015	7,456	6,238	5,834	7,106	5,281	65,257
폐업·도산	1,126	854	1,853	1,067	856	816	905	785	8,262
경영상 필요	12,387	10,780	15,509	15,624	13,273	12,144	11,848	10,324	101,889
자발적	726	647	904	850	847	899	892	820	6,585
기타	18	22	14	38	96	121	229	88	626

주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 피보험자는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Ⅱ. 서울지역 고용유지지원금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과 지급액도 크게 증가하였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할 경우 지급하는 휴업지원금, 유급휴직지원금,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의 규모가 코로나19로 대폭 늘어났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매월 지급인원은 수십에서 수백명에 불과했으며, 지급액도 많을 경우 2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굽요건 완화와 지원금액 상향으로 2020년 4월부터 급격히 고용유지지원금 규모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4월 지급인원 1만 7,558명에 지급액 185억원, 7월에는 지급인원 11만 335명에 지급액 1,419억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모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9> 서울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건수, 지급인원, 지급액

단위 : 건, 명, 억원

구분	지급건수	지급인원	지급액
2019년 1월	8	147	2.3
2019년 2월	10	163	2.4
2019년 3월	13	154	2.4
2019년 4월	19	159	2.7
2019년 5월	11	144	2.4
2019년 6월	9	119	2.2
2019년 7월	19	91	1.3
2019년 8월	8	283	2.0
2019년 9월	12	32	0.5
2019년 10월	13	54	0.8
2019년 11월	17	476	2.0
2019년 12월	17	64	0.8
2020년 1월	20	121	1.5
2020년 2월	13	165	0.9
2020년 3월	12	39	0.5
2020년 4월	2,489	17,558	186.4
2020년 5월	10,371	70,342	784.5
2020년 6월	12,918	98,056	1,124.4
2020년 7월	12,792	110,535	1,419.3
2020년 8월	11,955	80,737	1,029.8

주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합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표-10> 서울지역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지급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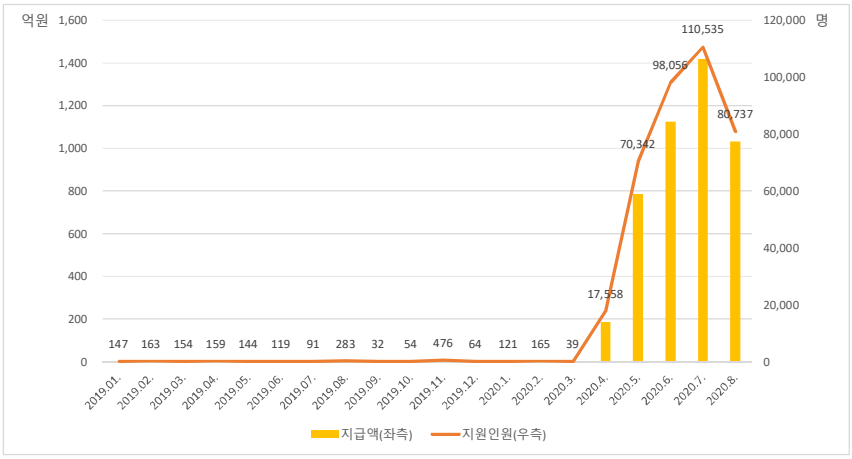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2020년 1월	31	90	0
2020년 2월	132	33	0
2020년 3월	11	28	0
2020년 4월	8,892	8,666	0
2020년 5월	34,591	35,751	0
2020년 6월	47,399	50,436	221
2020년 7월	40,478	67,307	2,750
2020년 8월	32,032	45,186	3,519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그림-6] 서울지역 고용유지지원금 변화

단위 : 억원, 명



주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합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2. 산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산업에 집중 지원되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지원인원을 보면, 도소매업이 가장 많은 8만 1,370명이었으며, 여행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이 7만 6,676명, 운수창고업 6만 3,568명, 숙박 및 음식점업 3만 9,068명 순이었다. 이들 4개 업종이 지급인원의 70%를 차지하여, 해당 업종의 코로나19 영향 피해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집중된 이들 업종은 구직급여 신청자에서도 다수를 차지한 업종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1~8월과 비교하여 2020년 같은 기간에 구직급여 신청자가 숙박 및 음식점업 58.4%, 도소매업 29.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27.2% 등이었다. [그림-8]에서 보는 것처럼, 주요 업종들은 2020년 6월을 정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1> 서울지역 산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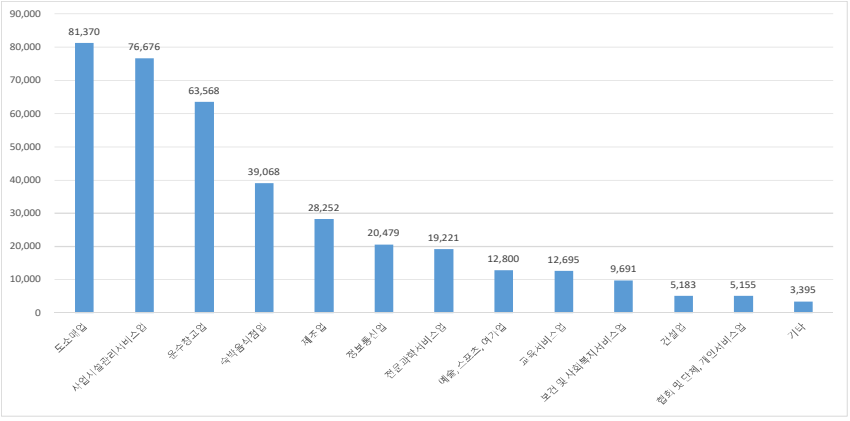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20.1	2020.2	2020.3	2020.4	2020.5	2020.6	2020.7	2020.8	전체
제조업	27	122	1	398	4,568	7,496	8,112	7,528	28,252
건설업	0	0	0	264	960	1,300	1,357	1,302	5,183
도매 및 소매업	14	5	10	2,570	15,574	24,922	20,162	18,113	81,370
운수 및 창고업	0	0	0	642	4,480	11,961	31,980	14,505	63,568
숙박 및 음식점업	0	0	0	1,206	9,742	10,802	10,420	6,898	39,068
정보통신업	0	3	0	675	4,661	5,373	5,353	4,414	20,47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	0	9	798	4,068	5,380	5,067	3,886	19,22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67	35	19	8,077	15,287	19,075	17,082	17,034	76,676
교육서비스업	0	0	0	1,163	3,804	3,151	2,515	2,062	12,69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	0	0	438	2,393	2,268	3,352	1,240	9,691
예술, 스포츠, 여가업	0	0	0	1,059	2,688	3,769	3,134	2,150	12,800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업	0	0	0	212	1,367	1,498	1,049	1,029	5,155
기타	0	0	0	56	750	1,061	952	576	3,395
전체	121	165	39	17,558	70,342	98,056	110,535	80,737	377,553

주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합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그림-7] 서울지역 산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2020년 1월~8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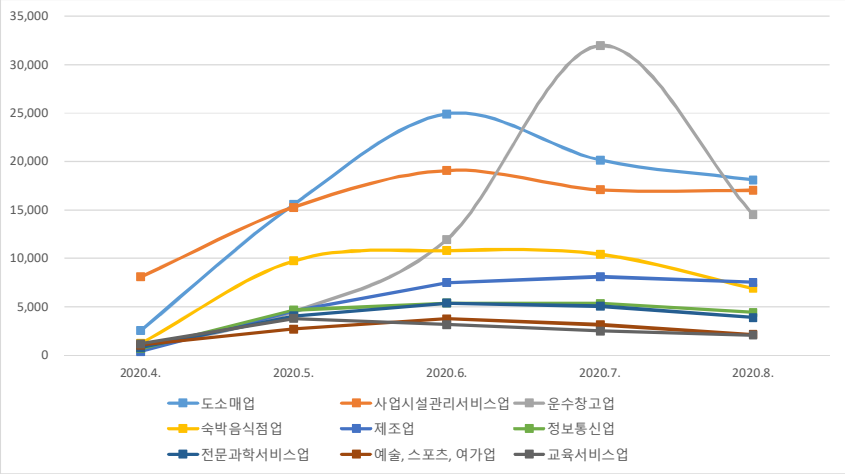
단위 : 명



주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합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그림-8] 서울지역 2020년 월별 산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변화

단위 : 명



주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합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3.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사업장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은 〈표-11〉과 같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누적 지급인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10만 5,9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29인 사업장 7만 4,648명, 1,000인 이상 사업장 7만 4,551명, 100~299인 사업장 3만 6,663명 등의 순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지급인원의 47.8%를 차지하여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6월을 정점으로 지급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도 7월에 가장 많이 지급하였으며, 8월에는 감소한 형태이다.

<표-12> 서울지역 사업체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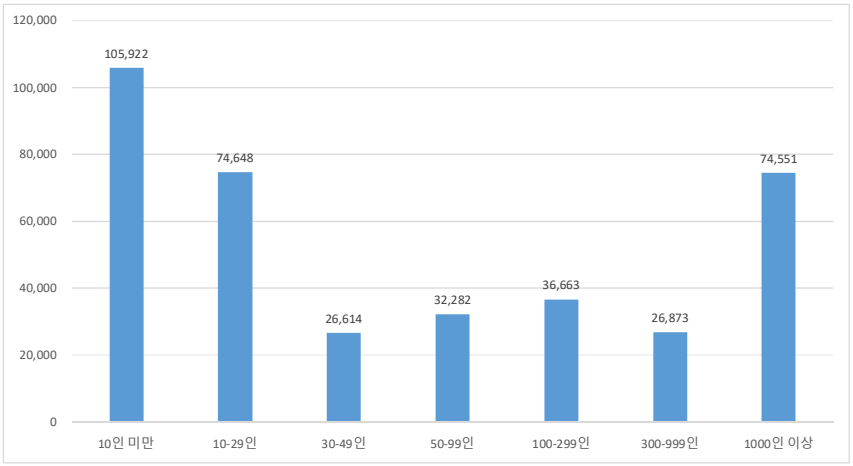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20.1	2020.2	2020.3	2020.4	2020.5	2020.6	2020.7	2020.8	전체
10인 미만	20	9	26	5,877	22,795	26,737	26,337	24,121	105,922
10 ~ 29인	59	24	4	3,998	16,121	19,478	18,259	16,705	74,648
30 ~ 49인	21	0	0	1,198	6,322	6,926	6,634	5,513	26,614
50 ~ 99인	9	10	9	1,763	6,563	8,875	7,899	7,154	32,282
100 ~ 299인	0	122	0	1,244	8,033	10,262	9,524	7,478	36,663
300 ~ 999인	12	0	0	876	6,162	7,392	8,783	3,648	26,873
1000인 이상	0	0	0	2,602	4,346	18,386	33,099	16,118	74,551
전체	121	165	39	17,558	70,342	98,056	110,535	80,737	377,553

주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합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그림-9] 서울지역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2020년 1월~8월 누적)

단위 : 명



주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합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글에서는 고용보험통계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실직예방과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이기에, 고용보험통계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노동시장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실업급여 수급률은 2018년 기준 약 45% 수준으로 우리나라 실업보험의 빈 구석이 많은 현실이다(장지연·홍민기, 2020).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충격을 고용보험통계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고용안전망 내의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고용보험 바깥의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고용보험 가입자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변화를 요약하면, 2020년 구직급여 신청자와 수급자는 이전 년도와 유사한 형태로 1월과 3월, 7월에 반등하는 모양새이지만, 규모는 훨씬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2018년 연간 총 수급자를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여성, 20대가 실직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남성과 다른 연령대보다 큰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19년 1~8월과 비교하여 2020년 같은 기간 구직급여 신청자가 58.4%가 증가하여 실직자가 크게 증가한 업종이었다. 사업체규모별로는 전년과 비교하여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증가율이 큰 것이 특징으로, 전년도 1~8월 누적 신청자와 비교하여 올해는 33.6% 증가하여, 다른 사업체 규모보다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직사유별로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

로 고용에 영향을 미친 2020년 3월부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영향의 이직사유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직사유 중 경영상 필요와 폐업·도산 비율이 1, 2월은 40.4%, 52.9%에서 3월에는 58.9%, 5월에는 63.9%까지 증가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서도 노동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전 연도와 비교할 수 없을 규모의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4월부터 정책적 노력으로 휴업 및 유급휴직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집중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지급인원의 절반 가까이 되었다.

고용보험통계로 본 서울지역 노동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서울지역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특징으로 하는데, 서비스업종 중 종사자가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순이다.[4] 그런데 이들 3개 업종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으로, 향후 고용위기 대책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여성과 청년을 위한 정책지원도 중요하다. 남성과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여성과 20대가 코로나19로 큰 고용위기를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설계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이다. 제도 자체가 보호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이의 모호한 고용관계가 확산되는 가운데, 피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은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 고용보험체계로 보호하기 어려운 실업자 보호를 위한 고용안전망 설계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

---

4) 2018년 서울지역 기준으로, 도소매업 89만 6,326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 49만 6,433명, 숙박 및 음식점업 49만 5,092명이 종사하고 있다(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kr).

참고문헌

김준영(2020),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상반기 노동시장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20년 8월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2020), 서울지역 고용동향(2020년 1월~8월)

윤정혜(2020), 구직급여 신청자 현황 및 증가 요인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2020 vol.3

장지연·홍민기(2020),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월간 노동리뷰 2020년 6월호

지상훈(2020),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고용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20년 9월호

한국고용정보원(2020), 17개 시도별 고용동향, 한국고용정보원,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20년 가을호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https://ei.go.kr)